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여쭙어 보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관련 분야의 책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든지, 해당 전문기관에 전화를 하여 알아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올리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칫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인지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리더에게선 유언비어 처리 능력 필요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상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과 가족 및 지인들의 불미스러운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더구나 상대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경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수위는 가능하기 어렵다. 과거 링컨의 정적들은 그가 흑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워싱턴의 정적들도 그와 유사한 소문을 유포시킨 적이 있다. 링컨이나 워싱턴이 모두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뒷줄에는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은 자신이 지



중상모략



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를 중상모략 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인터넷 상에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에 치명타를 가하는 비도덕적 범죄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이를 근절(根絶)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팀이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추적하여 가짜뉴스 유포 자를 찾아 법의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비난과 비판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을 슬기롭게 받아내지 못하면 명예회복도 어려운

법이다.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신을 중상모략한 사람을 찾아내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오히려 자신의 인격에 타격만 입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자. 내 체면을 구겨지게 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시련은 오히려 나의 의지를 단련시켜준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준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중국의 차이나 갓 텔런트 프로그램에

서 우승한 류웨이는 열 살 때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상태에서 찾아간 음악 학교 교장이 "만약 태의 아들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기보다는 감사했는데 이는 감사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예이다.

비난과 비판에 감사할 줄 알아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익숙해져야 한다. 리더에게 비판은 일종의 삶의 자극제다. 비판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공자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동조자보다는 비판자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니체는 비판은 힘 없이 들을수록 좋다는 말로 비판을 즐기라고 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자신을 비난한 자를 찾아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으로 차라리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낫다.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당장의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더 많은 보상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에 대하여 감사하라. 나를 더 나은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줄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Get rid of Self-Awareness!
나라는 의식을 버려라!**

마귀는 악의 영이다. 악령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욕심이다. 욕심 그 자체가 '나'이다. 따라서 마귀는 곧 '나'요 악령은 곧 '나'라는 의식이다.

▶ Satan is the Evil Spirit, and the Evil Spirit is an Evil Heart, and an Evil Heart is desire, and desire itself is Self. Accordingly, Satan is Self, and the Evil Spirit is Self-Awareness.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마귀 중에 마귀라고 말한다. 내가 곧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악이 되는 것이다.

▶ So, the Bible says that to love oneself is the evil of evils(2 Timothy 3:2). Because Self is the source of all evils, to love oneself becomes the worst evil.

성경은 또한 너 자신을 버리라라고 말한다. '내'가 마귀이며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을 버린다고 말한다.

▶ The Bible says also, "Deny yourself(Mark 8 : 34)." Because Self is Satan and sin itself, the Bible says that a believer must deny himself(Matthew 16: 24) .

구원론을 논한다면 죄인은 자유를 누릴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죄인은 오히려 태초의 하나님의 적이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유를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 As for salvation, the sinner can neither achieve liberty nor have salvation. He is, rather, the enemy of God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it is appointed for the sinner to enter Hell.

반면에 구원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은 마귀 영육에 갇혀 있고 우리는 그 영을 나라의 의식이라고 부른다.

▶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 to be saved is God. Only God can come and live in the Kingdom of God. The God to be saved is imprisoned in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which we call, "Self-Awareness."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정의를 위하여 '나'라는 의식은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

▶ Therefore, for God's kingdom and righteousness' sake, Self-Awareness must be got rid of forever.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인내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내'에 대한 격언이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서양에는 "인내가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속담이 있으며 동양에는 "극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天下勝)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자신을 이기려면 인내심이 수반된다. 승리자 구세주께서도 인내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무적장수가 되었다.

독일에는 "인내는 약마도 먹여치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육천 년 전에 마귀에게 지켰지만 육천 년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육천 년 만에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을 이루고 만 것이다. 이제 비로소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전 15:54)"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인내력으로 극기하여 완성의 구세주 하나님이 되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도로 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에 풀이나 나무나 짐승이나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죽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이 말씀 그대로 조희성님은 인간으로서도 저지 불가능한 물 한 모금도 전혀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30일씩 금식기도를 열네 번을 해내셨다. 이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을 모셨던 박태선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마.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는데 내게 있는 걸 아깝잖아 다 주마. 네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소원하는데 다 주마. 온 세상의 풍구덩이(인류의 죄)를 맡은 자의 주인공이여."

조희성님은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능과 힘과 창조력을 전부 받은 분이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전지 전능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성님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며,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진짜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조희성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의존명사 ③**

지난 호에 이어 의존 명사가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8) '차(次)'
"하러"의 경우나, 숫자 아래에 붙어 횡수를 나타낼 때에는 접미사로서 붙여 쓰지만 "어떤 일을 겪어서 다른 일까지 보게 됨"을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업무차 지방에 다녀오셨소.(접미사)/ 제2차 세계 대전(접미사)/ 자네를 부르려던 차였는데, 마침 잘 만났군.(의존 명사)/ 서울 갔던 차에 미리 말을 해 두었소.(의존 명사)

9) '곳', '곳이'
"어간"에 붙은 '곳'은 어미로서 붙여 쓰지만 "어미"에 붙은 '곳'은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어미)/ 마치 씨를 뜻이 달려 든다.(의존 명사)

10) '-데'와 'V데'
이것은 평정히 잘 틀리는 것 중의 하나이므로 신경 써서 살펴보자.
① '-(이)다. 그런데'의 뜻일 경우 붙여 쓴다. 이때는 어미로서 쓰인다.

예) 열철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지금 배가 아픈데, 약 좀 없니?

② '경우'와 '처지'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배 아픈 데 먹는 약/ 말 안 듣는 데는 매가 최고다.

③ '처소(處所)'를 나타낼 때도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애들이 마음놓고 놀 데가 없다./ 아버지는 먼 데로 가신다.

④ '일(것)'을 나타낼 때도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찬물을 마시는 데도 위아래가 있다.

11) '-지'와 'V지'
이 경우도 9)와 비슷한 경우인데 즉, '박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쓰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로서 띄어 쓴다.
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어미)/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자.(어미)/ 장사한 지 3일 만에(의존 명사)/ 그가 떠난 지 오래되었다.(의존 명사)*

이승우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가던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재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